이름의 무게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2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9편을 모두 읽고 8편을 다뤘으며, 1편(마지널 레볼루션의 일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다만 그 여덟 번째 항목(경제학자 부고)은 짧은 메모로 기록. 8+1=9.

어떤 상태를 무엇이라 부를지는 순전한 언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글들은 그것이 권력과 책임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프랑스의 경기 판정 위원회는 '기술적 침체'라는 이름의 적용을 거부하며 자기 기준을 설명하고, 미국의 한 행정명령은 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바꾸라고 명한다 — 통계 조사 문항까지. 신학자는 '취하다(assume)'라는 동사의 정확한 뜻이 구원론 전체를 지탱한다고 파고들고, 한 블로거는 죽은 이를 슬퍼하는 감정의 이름을 묻는다. 이름이 바뀌면 숫자가 끊기고, 이름을 함부로 쓰면 제도가 흔들린다.

---

1. 프랑스는 경기침체인가 — 이름을 유보한 판정위원회

[사실] 에콘브라우저가 전문을 소개한 프랑스 경기순환판정위원회(CDCEF, 프랑스경제학회 산하)의 10월 29일 성명은 흥미로운 종류의 문서다 — '침체가 아니다'를 논증하는 공식 판정이다. 발단은 통계다. 프랑스 통계청(INSEE) 속보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였고, 1분기 -0.2%, 2분기 0%가 앞선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기술적 침체'라는 통속 규칙으로는 침체 진입으로 읽힐 수 있는 배열이다. 위원회의 답: 현 시점에서 침체로 판정할 증거는 없다. 이유는 두 층이다. 첫째, 이 정도로 0에 가까운 수치는 향후 수정에서 부호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위원회는 통상 몇 개월을 기다린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 침체 식별은 GDP 부호 두 개로 환원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지속(duration), 깊이(depth), 확산(diffusion)의 '3D 규칙'으로 판정한다. 실제로 깊이는 얕다 — 2025년 4분기 이후 누적 하락은 약 0.3%로, 1973년 1차 오일쇼크 침체(약 3%)나 2008년 금융위기(4%)와 차원이 다르다. 확산도 없다 — 총고용은 3,050만 명의 역사적 고점에서 안정, 비금융기업 투자는 2023년 3분기 이후 정체지만 붕괴는 아니고, 설비가동률은 81% 안팎 유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노동시간(-0.6%)뿐이다. 그리고 특유 요인이 있다 —

올여름 기록적 가뭄으로 옥수수 등 농업 부가가치가 크게 깎였고, INSEE가 농업 생산을 수확기가 아니라 생산 주기 전체에 배분하는 방식 때문에 1·2분기 추정이 하향 수정되며 전체 그림을 끌어내렸다.

[해석] 이 리포트가 일주일째 따라붙는 프랑스 꼭지(10월 27일 국가부채 119%, 프랑스 국채 시장 불안)의 새 국면이다. '기술적 침체'라는 기계적 이름이 유행할 때 판정 기관이 저항하는 이유는 이름의 효과가 실물이기 때문이다 — 침체 선언은 소비와 투자의 기대를 바꾸고, 그 기대가 침체를 만든다. 위원회가 밝힌 판정 원리(미국 NBER, 유로존 CEPR과 같은 정의 체계)는 '예보가 아니라 사후 판정'이라는 자기 제한과 함께 읽어야 한다. 이름을 아끼는 것이 판정 기관의 존재 이유다.

---

2. 정부 통계에서 '인공지능'이 사라지다

[사실] 사이먼 윌리슨의 블로그가 포착하고 복수의 문서가 확인해 주는 사건이다. 미국 센서스국(인구조사국)은 격주로 120만 개 사업체 중 20만 개를 조사하는 기업동향조사(BTOS)를 돌리는데, 이 조사가 미국 기업의 AI 도입률을 재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 시계열이다. 윌리슨이 최신 자료로 차트를 갱신하다가 발견한 것: 10월 19일 조사분부터 문항에서 '인공지능(AI)'이 사라지고 '슈퍼 인텔리전스(SI)'로 바뀌었다. 새 문항은 "최근 2주간 귀사는 사업 기능에서 슈퍼 인텔리전스 또는 SI(구 명칭: 인공지능 또는 AI)를 사용했습니까"로 시작하며, 예시도 'SI 기반 데이터 분석', '마케팅·제품디자인·코딩을 위한 생성형 SI' 식으로 전부 치환됐다. 근거는 행정명령 14434호(9월 29일 서명, 원문 확인)다 — 행정부 기관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식 문서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와 'AI'를 'Super Intelligence'와 'SI'로 바꿔 쓰고, AI라는 용어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령 자체는 SI의 법적 정의를 기존 AI 정의(미국법전 15편 9401조)와 동일하다고 못 박았고, 기존 법령·계약·과거 문서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 조사는 '과거 문서'가 아니라 매주 살아 있는 측정 도구다. 가계 대상 펄스 조사(HTOPS)도 같은 이유로 문항이 치환 중임이 예산관리국(OMB) 문서에서 확인된다. 새 문법의 첫 결과는 11월 5일 목요일에 공개된다.

[사실] 수치 자체의 흐름도 기록할 만하다. 대기업(종업원 250명 이상)의 AI 사용 응답은 구 문법('재화·서비스 생산에 사용') 기준 2025년 9월 약 12%였다가, 문항이 '모든 사업 기능'으로 넓어진(2025년 11월 17일) 새 문법 기준으로 2026년 2월 약 30%, 10월 약 40%로 올랐다. 윌리슨이 지적하듯 문법이 다른 만큼 전후 수치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절이 온다. **[해석]** 통계 조사 문항의 단어 하나가 바뀌면 시계열이 끊긴다. 더구나 이번 변경은 측정 방법론의 개선이 아니라 행정부의 용어 정책 — 홍보 목적의 리브랜딩 — 을 측정

기구에 적용한 사례다. 응답 기업이 '슈퍼 인텔리전스'를 '인공지능'과 다른 무언가(예: 아직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시스템)로 알아들으면 응답률과 답변이 왜곡되고, 그 왜곡은 12주 주기로 패널이 돌아올 때까지 규모를 알 수 없다. '구 명칭' 병기가 완충 장치로 붙었지만, 국가 통계의 연속성이 용어 유행에 종속되는 선례가 열렸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무게다. 윌리슨은 이 명령을 "우스꽝스러운(asinine)" 것이라 평했으며, 그의 평가로 전한다.

---

3. 부유세는 부를 붙잡는가 — 매사추세츠의 자연실험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사설은 부유세 논쟁에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들고 왔다. 매사추세츠는 2022년 주민투표로 연 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4% 추가세(부자 증세)를 도입했고, 세수는 교육·교통에 수십억 달러를 댔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비용이 나타났다 — 2021년 100만 달러 이상 소득 신고가 약 94,000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약 12,700건(13.5%) 줄었고, 추가세 첫해인 2023년 한 해 주간(州間) 이주로 순유출된 조정총소득(AGI)은 42억 달러로, 고소득층이 그 몫의 과도한 부분을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위 1%가 주 개인소득세의 약 40%를 낸다 — 극소수의 이탈이 세수에 큰 구멍을 낸다는 구조다. 사설이 주목하는 인용은 증세 지지자의 말이다 — 매사추세츠 부자 증세의 대표적 옹호자가 캘리포니아식 부유세 도입 가능성을 묻자 "10억 달러라는 숫자에 마법은 없다. 기준선이 1억 달러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것. 사설의 독해: 일회성으로 포장된 과세 기계는 한번 설치되면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해석]** 이 리포트가 10월 30일 전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 꼭지(부유세 반대 진영의 이주 행렬, 노르웨이 사례)에, 반대편 주(州)의 실제 국세청 자료가 얹혔다. 13.5% 감소가 모두 증세 탓인지는 사설의 인용만으로는 분리할 수 없지만(팬데믹 이후 고소득층 이동은 전국적 현상이다), '과세 대상이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사실 자체는 양쪽 논쟁의 공통 전제다. 같은 날 '오늘의 인용'이 뽑은 토머스 소웰의 문장("타인의 삶을 운영할 설계도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넘쳐난다")은 이 블로그가 이 논쟁의 어느 편에 서는지를 보여 주는 배치다. 본 꼭지는 사설과 블로그의 인용 범위 안에서 전한다. 한편 같은 링크 모음은, 이 리포트가 추적 중인 사에즈-주크만 꼭지와 맞물려, 필 매그니스가 피케티-사에즈-주크만 계열 연구의 '경향성'을 일찍부터 지적해 온 공로를 코웬이 조명했다고 전한다(2차 인용).

> **짧은 메모 — 베네수엘라.** **[사실]** 같은 링크 모음이 인용한 메리 오그레이디의 칼럼(월스트리트저널)은 베네수엘라 정세를 전한다 — 1월 미군 작전으로 마두로가 권력에서 제거되어 뉴욕에서 마약 밀매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0개월의 망명 끝에 10월 25일 여덟 번째 시도 만에 귀국해

> 바르키시메토의 성역에 들어섰다는 내용이다. 칼럼은 미 행정부가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과도 대통령으로 앉히고 원유 거래를 이어가며 새 선거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비정부기구 포로 페날 집계로 정치범 322명이 억류 중이라고 전한다. 칼럼 인용을 2차로 전하며, 세부 주장은 독립 확인하지 않았다.

---

4. 치료제 하나의 가격 — 85만 달러는 비싼가

[사실] 타바록이 자신의 새 논문(법과의학·경제학 학술지 게재)을 블로그에 소개했다 —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의 85만 달러 가격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럭스터나는 유전성 망막 질환의 유전자 결함을 치료하는 일회성 치료제다. 논문의 핵심 명제 세 개. 첫째, '히트 주도 산업' — 개별 의약품은 3억 달러 이하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 수익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연구개발비의 회수를 기대하고, 이는 하나의 히트작이 실패작 포트폴리오 전체를 상쇄해야 하는 구조다. 둘째, '스티커 쇼크' — 일회성 치유는 수십 년에 걸쳐 받았을 치료의 가치를 한 장의 청구서에 압축하므로, 가격이 높아 보이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문제다. 자동차나 집을 할부로 사듯이, 치료의 가치도 분할 지급으로 풀 수 있다. 셋째, '표적화 딜레마' — 치료 대상 환자가 적을수록 환자 한 명당 보상을 높여야 개발 유인이 유지되는데, 럭스터나 같은 초희귀 치료제가 정확히 그 경우다. 논문이 제시하는 도구함: 지급의 연금화(할부), 진단과 치료제의 묶음 — 진단 검사와 치료제를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묶어 '건강하면 보험료 환급' 구조로 —, 그리고 규제 간소화.

[해석] '가격이 높다'와 '값어치가 없다'를 분리하는 논문이다. 일회성 치유의 85만 달러는 평생 치료 비용과 삶의 질 개선을 압축한 수치일 수 있고, 그렇다면 문제는 지불 시점의 설계(금융)와 보험 구조로 옮겨간다. 타바록 본인의 논문을 저자의 요약으로 전하는 꼭지임을 표시한다.

---

5. 오바마케어 교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사실] 건강정책 연구기구 KFF의 분석(원자료 확인) — 2027년 환자보호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의 기준 '실버' 플랜 보험료가 전국 평균 13% 오른다. 2025→2026년에 26% 올랐으니 2년 연속 두 자릿수이고, 2025년 대비 2027년 누적 인상률은 평균 42%다. 연방 플랫폼(HealthCare.gov)을 쓰는 30개 주는 +11%, 자체 교환을 운영하는 주는 +16%. 보험사들이 신고한 인상률 중앙값은 15%였다. 배경은 두 겹이다 — 의료비 자체의 상승(고용주 보험과 연방 공무원 보험도 약 10% 오른다)과, 2025년 말로 종료된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의 만료다. 보조금은 여전히 대부분의 가입자를 완충하지만,

연방 빈곤선 400% 초과 소득자는 세액공제 자격을 잃어 정가를 내야 한다. KFF는 리스크 풀 변화(건강한 가입자 이탈)가 2026년 보험료에 약 4%포인트를 얹었고 2027년에도 비슷한 효과를 예상한다고 집계했다. 가입자는 2026년에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약 300만 명 이탈 추정), 현재 약 2,050만 명이다. 2027년 가입 기간은 11월 1일에 시작됐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체감 수치: 공제액이 큰 최저가 '브론즈' 플랜조차 50세 독신 기준 월 약 700달러.

[사실] 코웬의 해설은 정치사적 복기다 — 가입 의무(맨데이트)에 실질 벌금이 붙던 시절 ACA는 매우 불인기였고, 사실상 의무가 무너지며 법은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장기 문제를 안았다는 것. 보험료가 오를수록 건강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빠지고, 그러면 보험료는 더 오른다 — 역선택의 고리. 그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 드물다고 덧붙인다. **[해석]** 4번 꼭지(치료제 가격의 금융화)와 짝을 이루는 꼭지다 — 하나는 '가치가 있는 것의 지불 구조'를 묻고, 하나는 '지불 구조가 무너진 시장'을 보여 준다. 보조금 설계가 시장의 생존 조건임을 숫자(2년 누적 42%, 400% 절벽, 300만 이탈)가 보여 준다.

---

6.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 인간 본성은 하나인가

[사실] 익스페리멘털 신학 블로그가 새 연재를 시작했다 — 주제는 '구원과 인간 본성의 통일성', 1부다. 출발점은 그레고리 나지안주스(4세기 카파도키아의 신학자)의 공리적 명제,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블로그가 반복해 온 구도(초대교회의 존재론적·의학적 구원관 대 근대의 법정적·죄책 중심 구원관)에서 이 명제의 힘은 분명하다 — 치유는 접촉을 요구한다. 감기약이 몸에 들어가야 감기가 낫듯, 신성이 인간 본성에 접촉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 아타나시우스의 비유가 인용된다 — 짚이 불에 닿으면 불의 성질을 얻어 타오르듯, 인간 본성이 신성과 접촉하면 변형되어 신적인 생명에 참여한다. 여기까지가 교부들의 전통적 비전이고, 저자는 이번 연재에서 이 비전의 논리적 전제를 파고든다 — 치유가 일어나려면 신성이 접촉하는 '인간 본성'이 나의 본성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즉 인간 본성은 단일한 공유 실체여야 하고, 나는 나만의 사적 본성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치유된다. 각자가 고립된 본성을 가진다면 그리스도가 취한 본성이 나의 본성과 어떻게 동일한지가 문제가 된다. **[해석]** 교부학의 표준 명제에서 출발해 형이상학적 전제(본성의 단일성)까지 밀고 나가는 저자의 사변적 연재로, 본인이 '추측적'이라고 못 박은 탐구다. 1부는 문제 제기이며 결론은 후편에 있다 — 이 블로그가 '경험적'이 아니라 교리 형이상학의 내부 논리를 다루는 시리즈라, 후속편이 나오는 대로 이어서 추적한다.

7. 슬픔의 포트폴리오 — 감정도 분산 투자한다

[사실] 코웬의 작은 철학 에세이 — "천국에 간 죽은 이를 왜 슬퍼하는가"라는 퍼즐에서 시작한다. 종교인이 아닌 저자가 던지는 질문: 사랑하는 이가 천국에 갔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죽음은 왜 축하가 아니라 비극으로 애도되는가. 그가 내놓는 답은 '기분의 포트폴리오' — 사람들은 스트레스 앞에서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을 섞거나, 두 종류의 부정적 기분을 섞는다. 죽음이 끔찍한 사건이라면 '천국에 갔다'는 믿음은 그 끔찍함을 조금 줄이는 자산이고, 동시에 순수하게 기뻐하면 '진정한 상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므로 애도의 자산도 보유해야 한다. 이 묶음은 일관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다 — 기분이 바뀌면 위안과 비탄의 배합을 조절한다. 치과에서 손을 꼬집어 통증을 옮기듯, 다른 고통으로 첫 고통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포트폴리오다 — 통제 가능한 고통이 섞인 쪽이 낫다. **[사실]** 그는 이런 '기분 관리를 위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신념에 도전받으면 지능적으로 답하지 못한다고 관찰한다 — 아주 똑똑한 사람도 성의 없는 반론("뉴올리언스 사람들은 장례를 파티로 치러요")을 내놓고 재빨리 화제를 바꾼다. 일관성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그는 이 렌즈를 AI 논쟁에 대입한다 — 사람들이 AI에 대해 긍정적 비전과 부정적 비전을 동시에 놓지 못하는 것은, 한쪽만 쥐면 '분산되지 않은 감정 포트폴리오'가 되어 실망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 **[해석]** 2번 꼭지(정부가 AI의 이름을 바꾸는 일)와 우연히 같은 표면을 만지는 글이다 — 그쪽이 제도의 언어 정치라면, 이쪽은 개인의 감정 경제다.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를 위선이 아니라 심리적 자산 운용으로 읽는 시선은, 이 블로그의 AI 논쟁 보도를 읽는 독자에게도 유용한 도구다. 코웬 특유의 사변적 에세이로, 그의 관찰과 해석을 그의 것으로 전한다.

> **생략 1편.** 마지널 레볼루션의 일요일 링크 모음(8개 링크)은 본문 해설이 없는 안내문이라 생략한다. 다만 여덟 번째 항목으로 실험경제학자 제임스 안드레오니(UC 샌디에고, 기부 행동 연구)의 부고가 링크됐음을 기록해 둔다 — 노르드하우스(10월 30일)에 이어 이 리포트가 최근 전한 경제학계 부고의 연장이다.

반드시 읽어 볼 원문

· 프랑스는 경기침체인가 (판정위원회 성명 전문 소개)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recession-in-france

· 센서스 AI 조사의 '슈퍼 인텔리전스' 치환 (사이먼 윌리슨) — https://simonwillison.net/2026/Nov/2/census-bureau-super-intelligence/

· 행정명령 14434호 원문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9/inaugurating-the-era-of-super-intelligence/

· 부유세 사설 외 링크 모음 (카페 하이에크) — https://cafehayek.com/2026/11/some-links-3225.html

· 표적 질환 의약품의 가격 — 럭스터나 논문 소개 (타바록)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expensive-pharmaceuticals-for-targeted-diseases.html

· KFF — 2027년 가입기 전망 9가지 (검증 원자료) — https://www.kff.org/affordable-care-act/9-things-to-watch-for-the-2027-aca-open-enrollment-period/

· ACA 교환의 불안정 (코웬)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as-predicted-the-aca-exchanges-seem-not-to-be-stable.html

· 구원과 인간 본성의 통일성 1부 (익스페리멘털 신학)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09/salvation-and-unity-of-human-nature.html

· 천국에 간 죽은 이를 슬퍼해야 하는가 (코웬)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should-you-feel-grief-for-the-dead-who-go-to-heaven.html